

司書教師와 讀書教育

— 새 교육과정의 독서과목 설치에 즈음하여 —

朴 容 料*

〈혜화여자고등학교 사서교사〉

目 次

- I. 지금까지의 독서교육 실태
- II. 미래의 독서교육의 방향
 - 새 교육과정 독서과목 —
- III. 독서교과 담당 교사
 - 사서교사가 말자! —

I. 지금까지의 독서교육 실태

1. '독서'의 필요성이나 '독서교육'의 중요성에 대하여 이를 부인하거나 경시할 교육자는 아마도—일

가. 운영 형태¹⁾

종 별	운 영 시 간	지 도 교 사
1	정규 교과 형식으로(시간 배정)	사서교사
2	HR, CA 시간	담임, 각 담당교사
3	보강 시간 활용	사서교사, 교과담당교사
4	CA독서반 중심으로	사서교사, 담당교사
5	학생도서위원 중심으로	사서교사

나. 지도의 실제 및 운영 효과

- (1) 독서 교육 전반에 걸친 체계적·이론적인 지도 결여
- (2) 문학류 일변도의 작품 읽고 독후감상문 작

성이 주종을 이루고

- (3) 독서 지도 업무 자체가 귀찮은 일
- (4) 잠무적인 성격을 띄고 있었고 승진 점수 따기 위한 기회로 활용되기도

* 서울특별시 사서교사 연구회 부회장, 1급 정사서 과정수료(1992)

독서요법에 관한 연구 발표(1980)

학습방법의 학습-독서학습에 관한 연구 발표(1988)

서울특별시 독서지도교사 연수 강사(1982~85)

문교부 독서지도 실무위원(1982)

1) 이 유형은 독서 지도에 대한 사서교사의 관심도의 고저, 강약 및 적극성 여부가 그 변수로 작용된 것임.

- (5) 다독자 및 우수 독후감을 시상하는 것으로 한 학년도의 독서 교육을 마무리 짓는 정도로 되었다.

2. 사서 교사의 역할

- 간여도 -

각급 학교마다 약간씩 다르겠지만 대체로 독서지도에 있어 사서교사는 직접·간접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온 것만은 사실이다. 오히려 독서지도를 전담하여 왔다고 함이 옳을 것이다.

II. 미래의 독서교육의 방향

- 새 교육과정의 독서과목 -

21세기를 향한 대학교육과 그 입시 제도의 개선 그리고 초·중·고교교육 등 기초적이고 본질적인

교육개혁을 서두르고 있는 당국은 '교육법' 제155조 제1항에 의거, 1996년 3월 1일 신입생부터 시행될 제6차 교육과정에서 '독서' 교과를 신설하였다.

이는 지금까지의 무계획적·비체계적 독서지도의 틀에서 벗어나 어느 정도 학문적·이론적·체계적인 독서교육으로 '독서' 본연의 모습으로 가는 길을 찾게 된 것이다. 참으로 환영할 경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한국 현대 교육의 신기원을 이루는 한 장면이요 학교도서관과 모든 사서교사가 한결같이 희구하여 왔던 소원이 성취되는 획기적인 일이며 현대 학교교육이 지향하고 강조하는 문제해결 학습능력을 신장시키는 문헌 유도적, 도서관적 교육방법의 길잡이 구실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큰 기대를 안겨 주고 있다.

이하 제6차 교육과정의 독서과목을 소개한다.²⁾

인문계 고등학교 단위 배당 기준

■ 보통 교과

교 과	공통 필수 과목	과정별 필수 과목	과정별 선택 과목
1. 윤 리	윤 리(6)		과정별 필수과목 에서 제외된 교과목 중에서 선택(8)
2. 국 어	국 어(10)	화법(4), 독서(4), 작문(6), 문법(4), 문학(8)	
3. 한 문		한문 I(6), 한문 II(4)	
4. 수 학	공통수학(8)	수학 I(10), 수학 II(10), 실용 수학(8)	
5. 사 회	공통사회(8) 국 사(6)	정치(4), 경제(4), 사회·문화(4), 세계사(6), 세계 지리(6)	
6. 과 학	공통과학(8)	물리 I(4), 물리 II(8), 화학 I(4), 화학 II(8), 생물 I(4), 생물 II(8), 지구 과학 I(4), 지구 과학 II(8)	
7. 체 육	체 육 I(8)	체육 II(6)	
8. 교 련		교련(6)	
9. 음 악	음 악 I(4)	음악 II(4)	
10. 미 술	미 술 I(4)	미술 II(4)	
11. 실업·가정		기술(8), 가정(8), 농업(6), 공업(6), 상업(6), 수산업(6), 가사(6), 정보산업(6), 진로·직업(6)	

2) 이것은 교육부 발행 고등학교 교육과정(1)(교육부고시 제1992-19호)에서 독서과목에 관한 것 일부를 요약하여 게재한 것임.

독 서

성 격

독서는 글에 나타난 정보와 독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상호 작용에 의하여 의미를 재구성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독자는 지적 능력을 신장시키고 정서를 함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문명의 발전과 문화의 창달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고등학교 '독서' 과목은 학생들로 하여금 '국어' 과목의 교육성과를 바탕으로 독서의 본질과 원리를 이해하고, 독서기능을 체계적으로 습득하며, 독서에 대한 올바른 태도 및 습관을 형성하게 하는 과목이다. 또한, 고등학교 '독서' 과목을 통하여 신장시켜야 할 지식, 기능, 태도와 관련되는 내용 요소들은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국어' 교과목의 '읽기' 영역을 통하여 학습한 내용 요소들의 체계적인 통합인 동시에 심화·발전이라는데 그 특성이 있다.

언어의 표현과 이해는 상호 밀접한 관계에 있다.

독서는 구체적인 언어이해 활동의 하나로서, '말하기', '듣기', '쓰기'와 여러 면에서 공통성을 가지고 있으며, 상보적인 관계에 있다. 그러므로 '독서' 과목의 교육에서는 그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독서교육 그 자체뿐만 아니라, '말하기', '듣기', '쓰기' 영역의 교육과도 긴밀한 관계를 이루어야 한다. '독서' 과목은 또한 문자 언어로 표현된 여러 분야와 관련되는 글을 통하여 학습하는 과목이라는 점에서 다른 교과 학습의 기초가 된다. 그러므로 '독서' 과목 교육의 진정한 의의는 바로 범교과적인 학습력의 제고에서 찾아야 한다.

목 표

- 의사 소통 행위로서의 독서의 본질과 원리를 이해하게 한다.
- 글의 성격과 독서의 목적에 맞추어 효율적으로 글을 읽게 한다.
- 바람직한 독서습관과 태도를 가지게 한다.

내 용

■ 내용 체계

영역	내	용
1) 독서의 본질	가) 독서의 기능과 특성 다) 독서의 목적과 방법	나) 독서의 심리적 과정
2) 독서의 원리	가) 단어 이해 기능 • 자구적 독해 • 추론적 독해	나) 독해 기능 • 비판적 독해 • 감상적 독해
3) 독서의 실제	가) 정보를 전달하는 글 읽기 다) 친교 및 정서 표현의 글 읽기 마) 태도 및 습관(※)	나) 설득하는 글 읽기 라) 독서와 학습 방법(※)

■ 내용(독서의 실제)

※ 독서와 학습 방법

- 읽는 목적과 자료의 특성에 따라 읽는 방법과 속도를 조절한다.

- 표제, 소표제, 내용 목차 등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읽는다.
- 각종 사전류, 안내서, 설명문 등을 효율적으로 이용한다.

- 그림, 도표 등을 바르게 읽는다.
- 도서관, 공공기관, 연구소 등을 활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는다.

※ 독서태도와 습관

- 독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가치를 인정한다.
- 독서에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읽을거리를 고루 읽는다.
- 조명, 책상과 걸상 등 독서의 물리적 환경을 알맞게 조성하고, 바른 자세로 독서한다.
- 상황과 처지에 맞추어 단기 또는 장기 독서 계획을 세운다.
- 읽는 글의 내용이나 책의 목록을 정리하는 습관을 가진다.

III. 독서과목 담당교사

— 사서교사가 말도록 하자! —

1. 위에서 본 것처럼 새 교육 과정에서의 독서과목(4단위)은 국어교과의 한 영역내에서 과정별 필수 과목으로 채택되어 있다.

따라서 앞으로 이 과목을 맡아 가르칠 교사가 국어과 교사임에는 해석상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학교 독서지도(교육)를 직접·간접으로 담당 또는 전담해 온 사서교사의 위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독서지도와는 절연하고 도서관에서 서고만 지키는 교사가 아닌 사서직만으로 족하다고 교사가 아닌 사서 생활만 할 것인가?

2. 사서교사와 독서과목 담당 문제

학교의 독서지도 영역에서 그 역할을 인정받아 온 사서교사는 앞으로 독서교과 운영에 전혀 참여할 수 없게 되는가?

이에 대해서는 당위성과 현실성 양면에서 고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가. 당위성

(1) 독서지도(교육)는 근본적으로 모든 교과에서 다룰 수 있는 성격의 과목이다. 따라서 모든 교사는 자기의 전문 교과영역에서 독서지도를 할 수 있을뿐 아니라 반드시 하여야 한다.

(2) 독서교육의 내용은 전통적 방식인 문학류 일변도의 책 읽기나 독후감 쓰는 정도가 아니고 본질적으로 읽을 거리의 의미를 어떻게 바르게 그리고 빨리 파악하느냐 하는 독서학습(learning to reading) 내지 학습방법의 학습(learning to learn)에 있다고 본다.³⁾

따라서 학교교육에서 실제로 독서자료의 실제 공급원이 되고 있는 도서관은 독서 교육의 장으로서의 위치를 점하고 있고, 이를 관리 운영하는 사서교사는 독서지도의 담당자로서의 역할(기능)을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자이다.

이는 책과 기타 자료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지닌 자⁴⁾로서 독서지도 방법에 관한 연구도 부단히 하고 있다든데서 더욱 그 당위성을 찾을 수 있다.

나. 현실성

(1) 지금까지의 독서지도를 주도해 온 경력

각급 학교의 독서지도 현장에서 사서교사가 제외된 학교는 거의 없을 것이다. 그동안 직접·간접으로 간여하여 오기도 하고 전담하기도 했다. 또한 독서지도 교사 및 도서관 관계 연수시 사서교사들이 강사로 활동하기도 하였다.⁵⁾

(2) 현재의 학교 교육과정 운영면에서 볼 때, 독서과목을 일반 교과 교사가 전담하기에는 여건상 거의 불가능하다. 교사 수급문제 및 개인별 수업 시수 조정문제 등 더구나 교무 분장상 독서지도를 비사서 교사에게 맡겼을 때도 그 운영은 거의 형식적

3) 독서학습 : 1976. 8. 12 국제 독서 과학회에서 발표한 M.C. Gotowala의 「Teaching reading through the curriculum」 학습방법의 학습 : G. Bateson의 Steps to an Ecology of Mind(1971)(역 : 마음의 생태학)

4) 사서교사는 영문자 Teacher, Librarian이 가르키듯이 교사와 사서 양 자격을 구유한 자이며 '독서지도'는 사서교육과정에서 필수수과목으로 편성되어 있다.

5) 1982~96 서울특별시교육연구원이 주관한 독서지도 담당교사 연수시 강사의 대부분 사서교사들이었다.

으로 진행되고 있음은 우리가 이미 다 경험하여 온 것이다.

(3) 독서교과 수업을 일반 교실에서 실시하기 보다는 도서관을 이용하여 직접 자료를 검색하면서 학생 스스로 학습방법의 학습을 몸에 익히게 하는 일이 효과적인 독서교육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이 점에서 사서 교사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제 안

— 사서 교사에게 맡겨라! —

독서 과목을 누가 맡을 것인가에 대하여 ‘국어과’ 교사만이 담당하여야 한다라고 확립적으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가. 교육과정 독서과목 지도의 실제 (내용)을 분석, 고찰할 때 (가)(나)(다) 단원은 국어과에서 그리고 (라)(마) 단원은 사서교사가 각각 맡는 이원화

방식을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어과 교사의 개인 별 사수 조정관계가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다)

나. 사서교사가 맡을 경우 그가 국어과 유자격 자라면 별문제 되지 않겠으나 만약 그렇지 않을 때는 이른바 ‘과목 상치’하는 이유로 사서교사의 전담을 기피할 것은 뻔한 일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임시 조치법이나 경과 규정에 의해 일정한 연수를 통하여 독서지도의 유경험자인 사서교사(일반교사 자격 소지 여부에 관계 없이)에게 전담토록 하면 될 것이다.

다. 독서과목 신설에 따라 우리 사서교사는 앞으로 어떤 자세를 취하여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하여 스스로 대오 각성하는 계기를 삼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한국 현대 교육상 그토록 소원해 왔던 ‘독서교육’이 정규교과로 교육과정에 채택되었기 때문이다.

알 림

박준식 교수(계명대학교 문헌정보학과)는 1976년에 발행한 「한국도서관학관계문헌색인 1945-1974」의 후속편으로서 「한국문헌정보학 색인 1975-1992」를 편찬 발행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이 색인의 보다 완벽한 수록을 위해 회원들께서 동기간(1975-1992) 중 출판 또는 발표한 단행본, 논문기사, 학위논문 등에 대한 완전한 서지적 사항을 적어 보내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내실 곳 : 대구시 달서구 신당동
계명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박 준 식
(053-580-5435)